

“DGB금융 차기 회장, 학맥·인맥·순혈 고집하면 공멸”

DGB금융지주 DGB

이경섭·김태오·박병탁 '3파전'
경영능력 검증된 CEO가 필요
31일 임시주총서 최종 확정 예정



DGB금융그룹 제2본점 /DGB대구은행

능력으로 뽑아야 할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임 작업이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이분법'으로 흐르고 있다. 내부냐 외부냐, 경북고대 비경북고 등 편 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DGB금융지주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DGB금융지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삼국지의 유비가 보여준 '서번트(섬기는) 리더십'이란 지적이다. 조조의 추격군에 밀미를 잡힐 뻔하자 참모들은 백성을 때어 놓자고 했다. 하지만 유비는 "나를 따르는 백성을 어찌 버린단 말인가. 내가 비록 조조에게 잡혀 불리한 신세가 된다 해도 백성과 같이 가겠다"는 말로 불평을 잠재웠다.

유비 처럼 고객에게 머리를 숙일 때와 시장과의 신뢰를 지킬 때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을 표출할 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섭 Vs 김태오 Vs 박병탁

1일 DGB금융지주와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 차기 회장은 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 박병탁 전 씨티은행 부회장 등 3파전

이 예상된다.

DGB금융과 지역 시민단체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최고경영자(CEO)가 수렁에 빠진 DGB금융지주를 건져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3명의 경영 능력을 어떻게. 이경섭 전 농협은행장은 2016년 3대 은행장에 취임해 2년 동안 살림을 맡았다. "행장이 아닌 모든 행원들이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강한 은행을 만들 겁니다."

그가 2016년 농협은행장에 취임할 때 한 말이다. 그는 "농협은행은 일류로 비상하느냐, 삼류로 추락하느냐는 갈림길에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3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협은행의 문제점으로 조직의 '적당주의'와 '온정주의'를 지목했다. 실제 2015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난 1763억원이었다.

이 행장이 취임한 2016년에도 신통이 없었다. 겨우 1111억원. 숫자만 보면 "농협이 그렇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조성과 해운에 몰린 여·수신과 선박 선수보증 부실화에 따른 1조7000억원의 충당금을 빼면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이들 충당금도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벌여놓은 뒷 수습 차원이었다. 시장에서 연간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던 터라 '흑자' 자체가 기적이라고까지 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자이익은 4조3821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12년 지주사 설립 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순이익은 6521억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8715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무려 486.9%나 늘었다.

이 전 행장은 198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수신부, 농협금융 경영지원부·서울지역본부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농협금융 부사장 때는 금융권 최초로 은행·보험·증권점포를 한곳에 모은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하기도 했다. 알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진두지휘했다. 이경섭 전 행장은 농협금융 안팎에서 추진력을 갖춘 전략가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지방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DGB금융지주를 이끌 검증된 CEO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은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의 주 재임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회계연도 하나생명의 자산총계는

각각 2조 8734억원, 2조9904억원으로 삼성생명(2013년 자산총계 193조원)의 본부 수준도 안된다. 하나은행 대구지역본부장을 잠시 거쳤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한 터라 지역 경제에도 밝지 않다는 평가다.

박병탁 전 씨티은행 전 부회장은 유일하게 외국계 은행 출신이다. CEO경험은 없다.

경영성과도 자랑할 만하게 없다. 한국씨티은행의 최근 3년 간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말 50조 5576억원, 2016년 말 45조8162억원, 2017년 42조9302억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순이익도 2015년 3896억원에서 2016년 2935억원으로 줄었다.

그는 무엇보다 국부추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거둔 순이익 2437억원의 38.5%에 이르는 939억원 정도가 미국 종합금융회사 씨티그룹에 배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도 앞으로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씨티은행의 눈치만 살피며 보신주의로 일해온 한국씨티은행 조직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 점포의 80%(101개)를 폐쇄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도 여전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부자 동네에만 점포를 남겨서 고객을 차별하고 주거래은행으로서 씨티은행과 거래하며 쌓아온 신용자산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은행법 위배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병탁 DGB유펜이 사장, 진병용 DGB생명 상임감사위원은 박인규 전 회장 사람이란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파벌이 만든 DGB, '백투더 베이직' 필요
"한국 금융산업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금융인의 윤리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개탄스럽다. 낙하산 경영진이 권력 투쟁이나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책임의식을 가질 리가 있겠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A은행장을 지낸 금융계 원로가 DGB 금융 사태를 지켜보며 내놓은 탄식이다. 이는 또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발언이다.

금융권에서 DGB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의 기본윤리'가 붕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이런 도덕적 해이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B은행 출신 한 은행장은 "낙하산 관치 금융도 문제지만, 학연·지연에 얽매어 금융의 사유화를 노리는 잘못된 파벌주의가 더 큰 문제다"면서 "이번 기회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DGB금융지주가 살아남는 한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DGB금융지주는 오는 3일 6명의 압주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5월 연휴, 해외여행보험 가입하세요”

국내 2~3일 전·해외 1주 전 가입해야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의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은 전년 대비 3% 증가해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 연휴,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4일연휴가 나뉘어 있어 가볍게 단기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이다.

여행을 가기 앞서 고려되는 부분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의 교통사고나 조난 대비외에도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이나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어 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자보험가입은 출발 2~3일 전이지만 해외여행보험 가입의 경우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해외여행일 경우 여행사를 통해 보험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개인 해외여행일 경우 개별적으로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방법은 설계사, 전화, 인터넷, 인 천공한 카운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30세 남자기준(보험기간 7일)으로 비교한 결과 보험료는 3970원~8100원으로 확인됐다. MG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이 397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4120원, 4178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보장 담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 질병의료비 각 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등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자 보험 보상은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사고접수-계약사항확인-지급금액결정-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어진다.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 보고서를 보험사 해외지사, 한국지사를 통해 접수하거나, 귀국 후 청구하면 된다.

또 여행중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가 없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5대 은행장, 필리핀 'ADB 연차총회' 집결

동남아 시장 점검·물밀작업 전망 현지 분위기 파악·네트워크 확보

KB국민과 신한,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장이 일제히 필리핀 출장길에 오른다.

공식적으로는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 5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금융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남아 시장 점검과 진출을 위한 물밀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이 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사이 필리핀으로 출발한다.

매년 5월 열리는 ADB 연차총회에는 80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제기구 총재와 주요 은행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시중 은행장들은 ADB 참석과 함께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지 분위기 파악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 모두 향후 성장동력으로 해외진출을 꾀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성도 이미 가시화됐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가 넘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동남아가 은행들의 진출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재 필리핀에 현지 거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은 마닐라 지점을 방문해 최근 영업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이스트웨스트은행 지분 20% 매각 분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이후로 별 다른 진전이 없음을 감안하면 위 행장이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번에 베트남 사무소와 미얀마 현지법인까지 둘러보고 을 계획이다. 올해 베트남에 2~3개의 지

점을 더 만들어 법인화하는 등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행장은 "농협만의 농업금융 노하우를 살려 동남아시아 농업국을 중심으로 진출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전략이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앞서 지난달 초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오면서 이번에는 ADB 참석 외에 아직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허 행장은 미얀마 방문 당시 행정수도인 네피도를 방문해 건설부장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미얀마현지법인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영업현장도 방문해 금융수요에 대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같은 기간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이유로 이번 ADB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장주요 담보 및 보장금액>

보장주요담보	보장금액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1000만원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